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WSJ: 1월 미 서비스 활동 예상보다 확장
- Goldman Sachs: 미국 경제 너무 좋은 걸까?

[미국 금융]
- WSJ: 미 최대 은행, 옛날 방식 지점들 늘린
- Goldman Sachs: 주요 기술주는 올해 매출 성장에 달려있다

[대선]
- Goldman Sachs: 올해는 글로벌 선거의 해

[무역]
- Bloomberg: 트럼프 후보, “당선되면 중국산에 60% 넘는 관세 부과”
- CNBC: OECD, “홍해 긴장으로 인플레 리스크 상당히 높아”

[인공지능]
- Bloomberg: 옐런, “규제당국과 금융기관은 AI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”

[반도체]
- WSJ: TSMC,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고, 2백억불 이상 투자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NYT: 퇴출당했던 아담 노이만, 위워크 되찾으려 노력 중
- Bloomberg: 독일 공장 주문, 작년 말 예상치 못한 증가 보여…

[보고서]
- 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(2024.2월)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U.S. Services Activity Expands More Than Expected, Says ISM
1월 미 서비스 활동 예상보다 확장

- 고용 추세가 개선되고 수요도 반등하면서 1월 서비스 활동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.

- ISM(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) 서비스 활동지수는 11월의 50.5에서 1월에 53.4로 올랐다. 당초 예상치는 52.0.

- 이 기관의 고용지표도 수치 50을 넘는 확장 영역에 들어갔다. 12월의 43.8에서 50.5를 기록했다. 신규주문 지표는 52.8에서 55.0으로 올랐다.

- 한마디로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비용 부담과 지정학적 갈등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.

WSJ 기사

골드만삭스 보고서: Global Views: Too Much of a Good Thing?
미국 경제 너무 좋은 걸까?

- 최근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. 작년 하반기 경제 성장속도가 4.1%에 올해 1월 비농가 일자리가 35만3천개 늘었다. 이런 현상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맞을 것인가. 그렇지 않다.
- 강력한 경제 성장률 지표에도 불구하고 국채 총 수입(GDI) 지표와 현재의 활동지수(CAI: Current Activitiy Indicator) 등을 감안할때 실질 생산량은 잠재성장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Goldman Sachs 보고서

[미국 금융]

WSJ: America's Biggest Bank Is Growing the Old-Fashioned Way: Branches
미 최대 은행, 옛날 방식 지점들 늘린

- 은행들이 디지털을 추진하고 있지만 JP 모건은 지점을 늘리고 있다. 다른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하고 있고 은행 이용자들이 창구에 가지 않고 앱을 이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.
- 이 은행은 보스톤 등에 향후 3년간 5백개의 지점을 확장하다.

WSJ 기사

골드막삭스 주식: Fate of the 'Magnificent 7' stocks depends on their ability to deliver rapid revenue growth in 2024
주요 기술주는 올해 매출 성장에 달려있다

- 7개 주요 기술주둥에 6개 종목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. TSLA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컨센서스 메출 추정치를 상회했다.
- 이들 7개 주식은 올초 대비 8%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나머지 S&P 493는 3%의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.
- 현재 프리미엄 벨류에시션은 7개 기술주늬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2% 인 반면에 S&P 493는 3%에 그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. 이들 기업들은 성장 기대치가 높긴 하지만 추정치가 실현되고 벨류에이션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아웃퍼폼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.

Goldman Sachs 보고서

[대선]

골드만삭스 대선: Top of Mind: 2024: the year of elections
올해는 글로벌 선거의 해

- 미국, 유럽, 인도등 전체 글로벌 인구의 반가량이 올해 선거를 경험하게 된다. JP모건의 전문가들에게 올해 각국의 선거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. 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, 즉, 덜 자유주의적인 도전자/포퓰리서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. 이는 유럽에서도 가능성 있다는 있다.
- 그런데 이들은 올해 미 대선이 미국 뿐만이라라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.

Goldman Sachs 보고서

[무역]

Bloomberg: Trump Floats Chinese Goods Tariff Exceeding 60% If Elected
트럼프 후보, "당선되면 중국산에 60% 넘는 관세 부과"

- 그는 당선되면 중국산에 60%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해 상품 교역에 관해 중국에 점차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.
- 그는 그러면서 "중국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다. 중국이 우리를 너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다"고 강조했다.
- 한편 시장은 트럼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차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CNBC: Red Sea tensions risk significantly higher inflation, OECD warns
OECD, "홍해 긴장으로 인플레 리스크 상당히 높아"

- 파리에 있는 OECD는, 홍해 위기로 인한 선박 요금 상승 때문에 OECD 회원국들의 수입 비용이 5% 증가할 있다고 말했다.
- 이 기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Clare Lombardelli는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해운 관련 인플레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.

CNBC 기사

[인공지능]

Bloomberg: Yellen Says Regulators, Institutions Should Deepen AI Awareness
옐런, "규제당국과 금융기관은 AI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"

-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이 금융기관 및 규제당국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의 역할과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.
- 옐런은 금융 분야에서 AI 사용의 증가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상승시키는 잠재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, 사이버 및 모델 리스크(cyber and model risk)도 존재한다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반도체]

WSJ: TSMC Lifts Chip Investment in Japan Above $20 Billion
TSMC,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고, 2백억불 이상 투자

- 오늘 화요일 TSMC가 일본 남부에 추가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, 총투자 규모를 2백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.
- 이 기업은 또한 애리조나에 있는 두 공장에 4백억 달러를 투자하고, 독일에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.
- 이런 모든 계획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, 현재 대만에 집중된 TSMC의 생산이 이 기업과 세계 경제를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원인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NYT: WeWork's Co-Founder Is Trying to Buy the Company
퇴출당했던 아담 노이만, 위워크 되찾으려 노력 중

- 위워크의 창업자인 아담 노이만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.
- 그은 위워크를 비즈니스이자 하나의 문화로서 탈바꿈시키며 큰 명성을 얻었지만, 회사로부터 퇴출당한 바 있다.
- 하지만 DealBook에 따르면,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헤지펀드 거물인 Dan Loeb의 도움을 받아 현재 파산 상태인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한다.
- 그는 자신의 새로운 부동산 기업인 Flow Global을 통한 위워크를 인수 고려하고 있다.

NYT 기사

Bloomberg: German Factory Orders Unexpectedly Advanced at Year End
독일 공장 주문, 작년 말 예상치 못한 증가 보여…

- 독일의 공장 주문이 예상치 못한 상승세를 보였다. 오늘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, 작년 12월 수요는 전월 대비 8.9% 증가한 것이다.
- 그러나, Bantleon의 경제학자인 Joerg Angele는 12월의 수요 상승세가 독일 제조업계가 처한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.
- 그는 독일 경제에 주축을 이뤄온 자동차와 기계 산업 분야의 수요 감소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.
- 독일은 에너지 위기와 둔화한 글로벌 수요로 인한 산업 침체를 겪고 있으며, 독일의 작년 4분기 GDP는 0.3% 감소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(2024.2월)

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옐런 "역사적 경제회복…안정적 금융시스템, 미 경제의 핵심"

6일 참석 예정인 의회 연설 초안서 밝혀

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6일(현지시간) 의회에 참석해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(대유행)에서 "역사적인 경제회복"을 이뤘다고 평가할 예정이다.

그는 또 금융 감독 당국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 향후 다가올 각종 리스크(위험)에서 금융시스템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.

5일 뉴욕타임스(NYT)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6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내놓은 연설문 초안에서 "우리의 경제 강점은 견고하고 탄력적인 금융시스템에 달려 있다"면서 이같이 강조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Unsubscribe office@kocham.org

Constant Contact Data Notice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